

10주년 임실N치즈축제 완성도 ↑

임실군, 부서·유관기관 준비 상황 보고회 갖고 세계적 문화관광 축제 도약 다짐

임실군이 11일 군청 종합상황실에서 오는 10월 3일부터 6일까지 개최되는 2024년 제10회 임실N치즈축제 부서 및 유관기관 준비 상황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는 심민 군수 주재로 국실과장, 축제 제전위, 유관기관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소관 분야의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집중 점검하고, 문제점에 따른 심도 있는 대책 마련의 장이 됐다.



임실군이 11일 군청 종합상황실에서 오는 10월 3일부터 6일까지 개최되는 2024년 제10회 임실N치즈축제 부서 및 유관기관 준비 상황 보고회를 가졌다.

한 신규 프로그램에 대한 완성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천만송이가 넘는 국화꽃 경관이 울해도 아낌없이 축제장 일대를 가득 수 놓아, 구절초 등 계절 꽃과 함께 관광객들에게 향기로운 가을꽃의 향연을 선사할 예정이다. 임실N치즈축제는 2015년 제1회 축제 이후, 3년여 만에 문체부의 2018 문화관광 유망축제에 선정됐고, 1년 뒤에는 2019 문화관광 우수축제로 승급됐

으며, 지정제로 변경된 후에는 2020~2025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됐다. 심민 군수는 "어느덧 임실N치즈축제가 10주년을 맞이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고, 그동안 성원해 주신 임실군민과 전국 각지에서 찾아주신 많은 관광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이제는 대한민국 대표 축제를 넘어 세계적인 문화관광 축제로 도약하기 위해 다시 한번 뚝뚝뚝 나아갈 것이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 발효테마파크, 굿즈 샵 개장

발효·미생물 캐릭터 기념품... 관광수익 증대 기대

순창군(최영일 군수)출연기관인(재)순창발효관광재단(대표 선운숙, 이하 재단)이 오는 13일 발효테마파크 내 음식스토리마켓 1층에 '순창 굿즈(기념품) 샵'을 개장한다. 관광수익 증대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기념품 샵은 순창군의 대표 브랜드인 고추장, 된장 등 장류를 친근한 이미지로 재해석한 발효·미생물 캐릭터 상품을 개발해 고객들에게 순창만의 굿즈(기념품)를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순창발효테마파크 기념품샵은 테마파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순창

군 여행정보, 시설 안내 등 순창군 관광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관광안내소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재단은 이번 기념품샵 오픈을 맞아 적극적인 마케팅과 차별화된 홍보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며, 오픈 기념 이벤트 행사는 7월 말까지 진행할 계획으로 이 기간 동안 다양한 혜택과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다. 특히, 굿즈 판매는 선착순 한정 판매로 진행되며, 금액별 구매 고객에게는 뽑기 이벤트를 통해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하여 테마파크를 방문한 관광객



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것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순창군을 대표하는 굿즈샵을 통해 테마파크가 새로운 관광 아이콘이자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새로운 굿즈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면서 "MZ세대를 포함해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는 발효테마파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여름철 호우 대비 건축공사현장 안전점검 추진

남원시는 여름철 집중호우 및 폭염 대비 건축공사현장 안전점검을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한다. 시는 3개 반 13명으로 점검반을 꾸려 경사지 절토 후 배수로 확보 등 우기 시 경사지 안전성, 토사유출로 인한 도로 등 인근농지 피해 발생 가능성, 공사장 가설물타러, 비계 등 안전시설

물의 허가 조건 및 지시사항 이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건설 현장의 경우 옥외 작업이 많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발생 우려가 커 온열예방 3대 기본수칙(물, 그늘, 휴식)을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 점검도 함께 실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부실 시공,

안전 및 품질관리 미흡 등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벌점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올 여름은 예년보다 덥고, 장마 기간에는 폭우와 폭염이 번갈아 나타날 것으로 예보되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현장에서는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작업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최경식 남원시장은 지난 10일, 남원에촌 사랑마루에서 2023년~2024년 사이에 발령받은 54명의 신규 공무원과 직무에서 벗어나 힐링의 시간을 갖고 시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2024 시장님과 함께하는 신규직원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여러분이 남원의 미래입니다”

최경식 남원시장, 시장님과 함께하는 신규직원 소통 간담회 가져

최경식 남원시장은 지난 10일, 남원에촌 사랑마루에서 2023년~2024년 사이에 발령받은 54명의 신규 공무원과 직무에서 벗어나 힐링의 시간을 갖고 시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2024 시장님과 함께하는 신규직원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신규직원들끼리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고, 남원에 관해 잘 알 수 있도록 △영화관람 △김병종미술관 및 남원다움관람 △레크리에이션 △시장님과 토크콘서트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행사 후에는 서로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치맥도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평소 시와 시장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직장생활의 애로사항, 소감 등

을 얘기하고, 시가 어떻게 변했으면 좋을지 등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공유하고 소통하는 시장님과 토크콘서트가 진행되어 이날 행사가 더욱 의미를 더했다. 최경식 시장은 “여러분이 남원의 미래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추진하는 모든 것이 현실로 반영될 것이라며, 그 생각이 발전될수록 시 또한 발전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러분들이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최상의 민원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도록 다하게 지원을 약속하며, 공직자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시장으로써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최종보고회

순창군은 지난 10일 2층 영상회의실에서 열기남 부군수 주재로 '2024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 안전점검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군은 2024년도 집중 안전 점검 추진 결과와 그에 따른 사후 조치 방안, 현안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보고회를 마련했으며, 보고회는 집중안전 점검 시설 관리부서 팀장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앞서, 군은 지난 4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60일간 92개의 시설물에 대해 13개 유관기관 364명이 참여해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했으며, 이날 보고회에서 각 부서 팀장들은 합동점검에서 도출된 현지 시정이 필요한 23개소와 보수 보강이 필요한 11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주요 지적 사항으로는 K급 소화기

비치, 화재감지기 변경, 파단통로 확보 등의 신속한 현지 시정이 있었으며, 이와 함께 비상수문 설치, 옥상 방수 공사, 보일러-스위치 이격거리 조정 등의 보수 보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군은 현재까지 지적된 11건 중 6건은 조치가 완료됐으며, 5건은 2024년과 2025년 예산에 편성해 조속히 보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열기남 순창부군수는 “이번 집중 안전점검을 통해 각 부서가 관리하는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점검과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동일한 문제점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달라”면서 “다가올 장마와 태풍에도 대비하여 꾸준히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강조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소식통

남원시, 염소경매시장 개장

남원시는 지난 10일, 관내 염소 농가의 소득증대 및 투명한 유통체계 확립을 위해 조산동 가축시장에서 첫 경매시장을 개장했다. 현재 염소경매장은 전국 8개 소로 전북에서 처음으로 남원 축협이 개장 운영하며, 시장에는 인근 시군 8개 지역 총 77두의 염소 중 72두가 경매로 거래돼 94% 낙찰률을 기록하였고, 생축 kg당 평균 2만원에 거래되었다. 염소 경매시장은 월 2회(둘째, 넷째 수요일) 정기적으로 개장할 예정이며, 경매장 시설로 현재 소 계류장을 사용하고 있어 추후 염소에 맞게 경매시설을 보완 구축할 예정이다. 경매시장 이용시에는 농가 및 가축 방역을 위해 가축사육장에 등록되고 구제역 백신접종을 마친 염소에 한해 매도가 가능하다. 남원 염소 협회장은 “염소 유통은 중간 상인들의 의해 가격이 결정되어 판매가 이루어져 염소를 재값에 판매하지 못하였는데, 관내에 염소경매시장이 개장되어 농가가 더욱 안전하게 제 가격을 받고 판매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점검

임실군이 토양오염 사고를 예방하고 적정 시설 관리를 유도하고자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2일간 관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10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란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 규정 에 따른 2만 리터 이상 석유류를 제조 및 저장하는 주유소 등이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관리 지침에 따라 임실군은 그간 관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총 37개소에 대한 2024년 지도·점검계획 수립 후, 각 시설별 토양오염 검사 주기 및 관리방안 등을 적극 안내해 왔다. 이번 정기 지도·점검 대상인 시설 10개소에 대하여 토양오염방지시설 적정 관리와 토양오염검사 실시 여부 등을 점검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N치즈

벨기에 출신 지명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